

크레이그 키너 박사, 사도행전, 강의 12, 사도행전 9장

© 2024 크레이그 키너와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은 사도행전을 가르칠 때 Dr. Craig Keener입니다. 사도행전 9장 12회입니다.

사울은 사람들을 체포해 왔지만 이제 사울은 주님께 직접 체포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용하실 수 없거나 하나님이 당신을 많이 사용하실 수 없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용하실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중 누구라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적용은 디모데전서 1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을 보여 주십니다. 박해자는 은혜의 대리인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때로 마카베오 문헌에서처럼 하나님께서 박해자를 가로채시는 것을 읽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를 자신의 목적을 위한 그릇으로 만드셨습니다.

사울은 이러한 수준의 박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31에서 그가 회심한 후 그리고 사도들이 그가 마을에서 나가도록 확인한 후에 평화를 누리십시오. 그러나 이러한 수준의 박해를 시작한 사람은 사울입니다.

그는 대제사장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으려 갑니다. 추천서는 그 당시 매우 일반적인 서신 형식이었습니다. 앞서 나가려면 도움을 줄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지위가 높은 누군가에게 가면 그들은 동료 중 한 명에게 추천서를 쓰거나 때로는 부하 직원에게 추천서를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Cicero는 이것의 대가였습니다. 사실 그의 편지집 중 13권은 바로 추천서이다. 그리고 당신은 고대로부터의 다른 추천서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Cicero는 이것의 대가였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다른 추천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가끔 그는 한 명 이상의 사람에게 이 사람이 최고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 같은 사람을 추천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디모데에 대해 말했듯이 키케로는 한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은 사람을 위해 그렇게 말했지만 대개는 소수에게만 해당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때에는 그는 나에게 당신의 충성심을 보여달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 친구이기 때문에 당신이 내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해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신약성경에 나오는 추천서, 빌레몬서, 빛 청산서 같은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상호주의가 큰 사회 문제였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나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글쎄, 지금은 그것을 활용해야 할 때입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면 당신이 나를 위해 이 일을 해준다면 나는 당신에게 호의를 베풀어야 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빚을지고 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가 갚을게요. 신약성서의 추천서에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신약성서에 있는 우리 편지들 중 일부는 부분적인 것이고, 그 중 일부는 추천서입니다. 뵈뵈를 추천합니다(로마서 16장, 1장, 2장 등). 어쨌든 사울은 대제사장의 추천서를 원합니다.

그것은 매우 설득력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대제사장이 자신의 사명을 지지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가 어떻게 대제사장에게 접근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의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젊은 남자는 대제사장에게 접근하는 데 더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1장 14절을 기억하십시오. 사울은 그의 동료들 가운데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22.3, 그가 가말리엘의 제자라는 것은 그가 부유한 가문 출신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헬레니즘 사람이라는 사실은 그에게 큰 불리한 점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내 말은, 대제사장들이 무덤 비문을 보면, 무덤 비문은 종종 그리스어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동부 지중해 세계의 더 넓은 그리스 문화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대제사장은 유대와 갈릴리, 팔레스타인 이외의 유대인 공동체에서 존경을 받았습니다. 대제사장은 더 이상 마카베오 시대처럼 인도에 대한 권한을 가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혼자서 모든 것을 다스릴 수는 없었지만 대제사장은 존경을 받았고 디아스포라 회당들은 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그와 협력할 것이었습니다. 또한 9장 2절에서도 그 길에 대해 읽습니다. 흥미롭게도 사울은 실제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여행하고 있습니다.

구절 중 하나에서는 동일한 그리스어 *hodos, he hodos*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길이라는 문구는 물론 유대인의 지혜가 어리석은 길과 반대되는 진리의 길과 의의 길을 말한 것입니다. Essenes는 당신이 가야 할 올바른 길인 신성한 길을 설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세례 요한이 와서 주님의 길을 선포하고, 새로운 출애굽의 길을 곧게 하십시오. 그러므로 그 운동이 길(*way*)이라고 불린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미국에서는 이단 집단이 그 이름을 대신 사용했기 때문에 실제로 교회를 그렇게 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것은 초기 기독교 운동이 스스로 선택한 이름이었습니다. Essenes는 자신을 위해서도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중입니다.

이제 그것은 긴 여정이다. 그곳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135마일, 즉 220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평균적인 여행자라면 도보로 6일이 걸릴 것입니다.

다마스쿠스 문서에서 상징적으로 의미하지 않는 한, 다마스쿠스에는 많은 에세네파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것에 대해 약간의 논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것은 다메섹에 있는 회당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에세네파는 아니었을 것이지만 다메섹에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회당 복수형입니다. 고대 건축에 유용하다고 알려진 어떤 방법으로도 이 모든 것을 하나의 회당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요세푸스에 따르면 그곳에는 20,000명 이상의 유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회당이 필요했습니다. 실제로 요세푸스는 66년에 그곳에서 학살된 유대인이 무려 18,000명에 달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상당한 규모의 유대인 공동체를 갖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걸어서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글썬요, 그건 질문입니다. 만일 그가 말을 타고 갔다면 6일도 채 걸리지 않았을 것이다. 훨씬 더 빨랐을 겁니다.

그러나 9장 3절에서 사울과 그의 동료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빛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것에 대해 읽었습니다.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에서 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글썬요, 하늘에서 오는 이 빛은 쉼이나, 즉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해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성한 부르심에 수반되는 신현을 포함하여 신현에서 여러 번 발생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사야 6장에는 이사야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겔 1장에 그 일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 각각에는 신성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보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레미야의 경우에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정확히 기드온의 경우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의 경우와 마노아의 경우, 사사기 6장과 13장에서 천사는 흥미롭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9장과 3절에서 이것은 신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누가는 그의 청중이 구약을 거의 알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구약을 모르는 청중도 기대했지만 구약을 모르는 청중조차도 이것이 무엇인지 인식할 것입니다. '탄생을 알릴 때 목자들에게 주님의 영광이 빛난다. 그리고 이때 사울도 알아야 하고, 그의 동료들도 주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신이다. 그러나 사울은 그것을 삼키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그래서 9장 4절에서 그는 땅에 쓰러졌습니다.

글쎄요, 그것은 구약과 유대 문학 모두에서 신이나 천사의 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다니엘서에서 천사들이 등장하는 모습을 여러 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땅에 쓰러진다.

사울, 사울, 그의 이름이 두 배가 되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창 22:11,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은 여호와와 사자가 그를 부르는 대로 여호와와 사자니라. 그리고 창세기 46장 2절에는 야곱아, 야곱아, 여호와께서 밤 이상 중에 그에게 말씀하시느니라.

출애굽기 3장과 4절, 모세, 부르심을 받은 모세. 사무엘상 3장과 10절, 사무엘, 사무엘.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그 이름을 두 배로 부르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 중 일부는 매우 좋은 사례였습니다. 그러니 사울은 비록 넘어졌더라도, 말에서 떨어졌거나 밭에서 떨어졌을지라도 좋은 일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좋은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정확히. 그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말합니다. 사울아, 그가 어떻게 주님을 박해할 수 있겠는가?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박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누가복음 1권인 누가복음 10장과 16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을 거부한다면, 나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받아들이고, 그들은 나를 받아들입니다. 사울은 예수의 추종자들을 박해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그들이 우리에게 하는 일은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나중에 고린도 교인들 중 일부가 거짓 복음을 전파하는

그의 경쟁자들을 향해 움직일 때 직접 이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맥락에서 기본적으로 그는 하나님과 화해하려면 우리와 화해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음, 그것은 매우 쉽게 남용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많이 악용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말하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 알릴 때 우리는 그분의 대리자, 대표자로서 행동합니다. 글썬요, 사울은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그는 명백한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것은 명백한 신현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을 박해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아시다시피 Lord Kuria는 존경하는 칭호이지만 호칭으로 사용되어 직접적인 호칭으로 사용됩니다. 감독의 curia는 Curia를 지칭합니다. 이는 선생님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더 강한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신성한 주님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신인가요? 이 사람은 천사인가요?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6장에서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나 6절에서는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거기서 더 많은 지시를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어에서 당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한 이 언어는 실제로 237에서 군중이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리고 베드로는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아니면 16장 30절에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빌립보 간수가 묻습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기 위해 그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맡기신 사명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8절에서 그는 자신이 눈이 멀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악한 목적을 막기 위해 때때로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9장과 11절에 소돔 사람들이 눈이 먼 것을 기억하십시오.

열왕기하 6장에서는 군대 전체가 눈이 멀게 되고 엘리사는 그들을 다른 곳으로 인도합니다. 적어도 그들은 주변 환경이 실제로 어떤지에 관해서는 눈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그들을 포로로 데려가서 장기적으로 그들에게 유익이 되는 목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마도 누가복음 1장에서 스가랴가 병어리 된 것과 유사할 것입니다. 스가랴는 불완전하지만 선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사울은 나쁜 성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분명히 틀렸습니다. 9절에 따르면 그는 사흘 동안 금식합니다. 3일 동안 단식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지만, 물이 없으면 특히 세계의 매우 건조한 지역에서는 탈수증을 유발할 수 있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종종 애도나 회개와 결합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물 없이 3일 단식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 없이 장기간 단식을 하는 것은 실제로 신장에 위험합니다.

하나님은 모세 등을 위해 기적을 행하셨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한 사람들이 있었고 이번 경우에는 사울이 이렇게 합니다. 즉, 이것이 삶과 죽음이다.

그는 믿을 수 없지만 자신이 잘못된 편에 있었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토라를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본적으로 자신이 믿는 모든 것이 다시 생각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애도나 회개를 위해 금식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그에게는 참으로 회개할 이유가 있습니다.

신약성경에서는 보통 기도와 결합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는 그도 비전을 보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루크가 그것을 서술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단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는 단지 아나니아가 예수로부터 사울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줄 뿐입니다. 9장 10절부터 19절. 우리는 아나니아의 사명에 대해 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시자 아나니아는 매우 정중하고 매우 순종적으로 대답합니다. 여기 구약 성서에 나오는 히네니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을 보면, 주님께서 사무엘과 엘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제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아요, 마침내 엘리가 이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그 아이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음번에 당신이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시면 당신의 종이 듣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가서 누웠더니 주님께서 세 번째 그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니면 이사야가 부름을 받은 경우입니다. 나 여기있어. 저는 여기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정말 순종할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것을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시를 받습니다. 다소의 사울에게 가야 합니다.

아, 잠깐만요. 나는 사울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 이제 이 사울은, 알다시피,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시는데, 사울은 처음에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제 그는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아나니아는 '이것이 좋은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를 박해하러 왔다고 들었습니다. 글썄, 그건 그 사람이 상관할 일이 아니야. 주님께서 지시하시면, 그것이 당신을 환난에 빠뜨리더라도 그대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그가 내 영광을 위해 선택된 그릇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도행전에서 세 번 반복될 것입니다. 한 곳에서 바울은 더 간략하게 설명하고 아나니아의 개입을 생략할 수 있지만, 사도행전 22장에서 예루살렘 군중에게 말할 때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인 아나니아를 언급하는 것은 확실히 그가 마땅한 일입니다.

주님은 사울에게 직접 부르심을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여러 곳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그가 아나니아를 통해 사울을 부르신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울은 여러 방향에서 그것을 얻습니다.

내 말은, 주님은 분명히 그를 원하시고 주님은 그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확증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아나니아는 순종했습니다. 이제 그는 사울이 곧은 길에서 유다와 함께 머물고 있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신다고 말합니다.

유대 문화는 환대를 매우 강조했습니다. 이는 지중해 세계 전역에서 강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Koenig와 Artebery 등 많은 연구가 있었습니다.

환대, 유대인 환대에 대한 매우 강조점은 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여행하는 유대인이 귀하의 지역에 왔고 귀하가 유대인이라면 아마도 그들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특히 추천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체사장의 추천서가 있다면 반드시 받아들이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다가 신자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그는 이 시점에서 신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어도 사울이 그에게 오기 전에는 그랬습니다. 직선 거리(Straight Street) 아마도 많은 학자들은 다마스쿠스를 관통하는 긴 동서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메섹은 매우 오래된 도시였습니다. 이 기간에는 그리드에 물건을 만드는 그리스 방식에 따라 일부 사항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그러나 Straight Street는 East West Street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거리가 보이는지의 전통에 부합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시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넬료가 나중에 무두장 시몬의 집에서 베드로를 찾을 수 있는 곳을 알려준 것처럼 그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다소, 다소의 사울. 우리는 Tarsus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다소는 매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Paul이 말하기를 저는 하찮은 도시가 아닌 시민입니다. 이는 그 도시가 매우 중요한 도시라는 것을 표현하는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그랬다. 길리기아의 수도였습니다. 그것은 번영했다.

상인들의 대표자들은 고대 지중해 세계의 다른 많은 도시들에 있었습니다. 특히 철학 분야의 주요 대학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Paul이 그곳을 떠났을 때 나이가 몇이었느냐에 따라 아마도 꽤 어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곳을 떠난 나이에 따라 적어도 그의 가족은 거리에서 이 말을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특히 관련성이 높은 대규모 유대인 공동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가서 사울도 환상을 보았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글썄요, 짝을 이루는 비전은 꽤 흔했습니다.

사실 고대 세계에서는 짝을 이루는 환상이 매우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토비트서처럼 짝을 이룬 환상으로 기술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신성한 협력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이 두 장이 연달아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은 사울과 아나니아가 둘 다 환상을 가지고 있는 쌍의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될 수 없습니다.

내 말은, 한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도 환각에 빠졌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중 확증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와 베드로도 같은 방식으로 환상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모세가 애굽으로 가서 백성을 해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반대한 것과 다름없는 황당한 명령에 반대합니다. 그러나 그는 구약의 부르심이나 의뢰서와 유사한 15절과 16절을 사울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그는 아마도 비유적인 친척 언어인 사울 형제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문자 그대로 반드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동료 유대인들을 위해 그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도 그런 모습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무역 길드 등의 동료 회원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아마도 동료 신자를 의미할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다소의 사울이 그들을 박해했기 때문에 다메섹과 같은 곳으로 흩어진 이 운동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제 그는 그를 동료 신자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복음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가 은혜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양측 사람들, 우리가 잘못된 사람들에 대해 많은 설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무신론자였을 때 기독교인들을 조롱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회심한 후, 돌아가서 제가 조롱했던 기독교인들을 찾아보니 제가 정말 틀렸다고 말했습니다. 당신 말이 옳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나를 주님 안에 있는 형제로 맞이해 매우 기뻐했습니다.

정말 은혜롭습니다. 이런 보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을 공격할 계획을 세웠던 사람들이 밤에 환상을 보고 회심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그리스도인들과 합류하여 그리스도인들에게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동료들이 그들을 죽이고 싶어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수하여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보게 하려고 나를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위해 영으로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몇 구절 뒤에서부터 매우 빠르게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는 이미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그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글쎄, 그것은 토빗이 눈이 멀고 그가 고침을 받았을 때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는 토빗서의 언어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글쎄요, 그가 침례를 받을 수 있는 곳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가 세례를 받을 수 있었던 장소 중 하나는 바라다 강이었습니다. 이 강은 다마스쿠스를 관통하여 흐르고 전승에 따르면 직선 거리(Straight Street)가 있는 곳과 가깝습니다.

9장 19절부터 31절까지에서는 다메섹과 예루살렘에서의 대결에 대해 읽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메섹과 예루살렘에서 사울에게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평행한 내용이 서술됩니다.

그가 설교를 시작하자 사람들은 그를 죽이고 싶어했고, 그가 자신의 믿음에 대해 너무 솔직하게 말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는 그것에 대해 조용히 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그들이 너무 일찍 순교당하도록 그들을 보내줄 사람들도 필요할 것입니다. 둘 다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에 대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다메섹에서 사울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전파할 때 보인 반응은 누가복음 4장의 첫 번째 메시지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과 유사합니다.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이 모든 일이 여러 날 후에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루크는 그것이 며칠인지 우리에게 실제로 말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는 몰랐을 것입니다.

바울이 그에게 모든 것을 말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그에게 모든 세부 사항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쨌든 누가는 바울과 함께 있었을 때 이 모든 것을 정확히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건 내 추측이야. 하지만 루크가 그 일에 참여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주요 논점에서 벗어났습니다.

누가는 특히 나바테아의 반대가 아니라 바울이 다메섹에서 직면했던 유대인의 반대를 강조하고 싶어할 것입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통해 바울이 고대 용어로 3년 중 최소한 3년을 보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1년 반에서 3년 정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아라비아에서는 나바테아 아라비아(Nabatean Arabia)가 나바테아인들이 살았던 지역이었다. 여기에는 데가볼리가 포함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기간에는 다마스쿠스가 포함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전 중 일부가 누락되었기 때문에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다마스쿠스를 누가 장악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린도후서 11:32에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나바테아 무역 공동체의 우두머리였을 나바테아 에스나르크에 대해 읽습니다. 나바테아 아랍인의 영토에 들어가기 위해 다마스쿠스를 너무 멀리 넘어갈 필요는 없었습니다.

물론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그것을 강조할 이유가 있는 이유는 그가 4장에서 아라비아의 시내 산에 대해 계속해서 이야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자신이 아라비아에서 무엇을 했는지 말하지 않지만 아마도 그는 어떤 일을 했을 것입니다. 미친 사람들. 이제 다시 아라비아라고 하면 이곳은 나바테아 아랍인의 지역입니다. 이곳은 시리아 다마스쿠스입니다. 아라비아 반도의 후기 다마스쿠스는 아니지만 나바테아 아랍인들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무엇을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따르면 사울이 나바테아 에스나르크에게 화를 냈기 때문에 적어도 그 중 일부는 설교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을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내 말은,

나바테아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의 관할하에 있던 페레아에도 많은 나바테아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는 많은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팀을 이룬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특히 나바테아의 반대를 언급합니다.

누가는 유대인의 반대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데, 이는 가장 많은 기회를 가졌던 사람들이 그것을 가장 무시했다는 그의 주제에 부합하며, 우리는 오늘도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함께 일했을 것이라는 생각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중에도 바울이 유대인 공동체에 먼저 갔기 때문입니다. 글썄요, 나바테아에 사는 유대인들에게는 그곳이 그가 먼저 갔을 곳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는 다메섹으로 돌아왔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또한 그가 다메섹 근처에서 개종하여 다메섹을 탈출해야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중 일부는 바울 자신의 경험에 대한 편지를 통해 실제로 입증되었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서 비슷한 반응을 경험했으며 그곳에서 전파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5장에서는 예루살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처럼 복음이 나아갈 곳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가 로마서 15장에서 그것을 계산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9장 22절을 보면 사울은 이미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그는 이런 편지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회당에서 그가 환영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의 경전 전문 지식, 경전 훈련, 아마도 3차 수준의 훈련이었을 것입니다. 고대 대부분의 사람들은 훈련을 조금이라도 받았다면 초급 수준이었습니다.

더 적은 수의 사람들이 보조 교육을 받았습니다. 가장 높은 수준의 자원을 가진 사람들만이 3차 수준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는 구약의 헬라어 번역인 칠십인역을 앞뒤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글쎄요, 하나님은 종종 우리 배경의 일부를 사용하십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종종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부로 부르십니다.

마가복음 1장, 마태복음 4장. 어부였던 제자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다윗은 목자였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목자가 될 준비를 갖추는 데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 하나님은 그의 배경의 긍정적인 측면을 사용하십니다. 글쎄, 결국에는 사울에게 알려진 음모가 있습니다.

고대에는 음모가 일반적으로 유출되었기 때문에 그다지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로마 원로원 내에서 부화되었던 음모가 유출되었습니다. 산헤드린의 음모가 유출되었습니다.

사실, 요세푸스, 산헤드린에는 요세푸스를 반대할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요세푸스는 그의 친구 중 한 명이 그 소식을 듣고 와서 그에게 말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모에 대한 소문이 자주 퍼져 나갔지만 사람들은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밤에는 문이 닫혔습니다. 게이트 영역은 꽤 넓을 수 있지만 밤에는 게이트가 닫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가는 사람들을 게이트에서 아주 작은, 아주 작은 출구로 제한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감히 그런 식으로 도망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Nabatean 민족 군주는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에 따르면, 꽤 규모가 큰 다메섹의 유대인 공동체에도 성문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2절과 33절에는 그가 성벽에서 탈출했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집은 때때로 성벽 안에 지어졌습니다.

야나니아의 집이 있던 전통적인 장소는 실제로 성벽 위에 지어진 나바테아 지구에 있습니다. 이제 그 전통은 여기에 몇 가지를 종합함으로써 생겨났을 수도

있지만, 그곳에 보존된 기독교 공동체의 어떤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구니에서 벽으로 내려갔습니다.

일반적으로 창문은 심지어 벽에 있는 집에서도 매우 높아서 사람들이 침입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것은 그다지 의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성벽 밖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도시는 성벽 너머로 성장했지만, 바구니가 성벽을 타고 내려오는 것을 보고도 별로 놀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물건을 들고 다니는 것보다 쉬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창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누군가 물건이 담긴 바구니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사울과 그의 친구들은 어디서 이런 생각을 얻었습니까? 음, 이에 대한 성경적인 선례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2:15, 라합이 자기 집에서 정탐꾼들을 성벽으로 내려보낸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무엘상 19장과 12절에서 다윗도 그 기술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미갈은 그를 성벽에서 내려주었습니다. 9장 26절과 27절. 그분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가셨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그를 두려워했지만 바나바는 정말...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양한 인격을 사용하시는 것을 봅니다. 바나바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사람, 사도들이 그를 격려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나중에 그는 안디옥에서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는 John Mark와 함께 그 일을 하고 싶어합니다. 사울은 사명에 너무 열심이어서 사명이 먼저입니다. 우리에게서 바나바와 사울이 모두 필요합니다.

아시다시피, 때때로 우리는 그곳에서 일어난 일처럼 특정 시간에 잘 지내지 못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은사를 사용하십니다. 내 아내는 아마도 바나바에 가깝고 나는 어떤 면에서는 바울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둘

다를 사용하시며 우리는 상호보완적입니다. 어쨌든 그는 손을 내밀어 그를 소개하고 데리고 가서 사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음, 루크는 매우 간결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의 기록에 따르면, 그곳의 사도들 중에서 그가 실제로 알게 된 사람은 베드로와 이번 기회에 주의 형제인 야고보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그가 헬라파 유대인들과 변론하고 있어서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티븐에게도 일어났던 일과 똑같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사울도 회당의 일원이었는데 이제 그들은 그를 잠잠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도 스데반처럼 순교를 위해 숨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사도행전에서 의심할 바 없이 바울에 대해서는 들어봤지만 사울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을 수도 있는 처음으로 이야기에 긴장감을 조성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를 다소로 보냈습니다. 이제 이것은 바울이 초기에 시리아 지역에서 시간을 보냈다고 말한 것과 일치합니다. 그 지역에는 분명히 다소가 포함된 다메섹과 길리기아가 포함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소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 사람은 아마도 거기에 친척이 있을 것이고, 적어도 거기에 친척이 있을 것입니다. 그의 가족이 예루살렘으로 이사했을 수도 있고 방금 그곳으로 보냈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의 조카가 나중에 그곳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마도, 적어도 아마도 다소에 친척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는 적어도 그가 알고 있고 다소에서 연락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몇 있었을 것입니다.

그곳이 그가 태어난 곳이다. 그리고 그는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렀다. 이곳은 그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묘사한 회당에서 매를 맞은 장소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어디서 그 많은 구타를 당했는지 알지 못하지만, 사도행전을 통해 그가 실제로 안디옥 교회에서 쫓겨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아직 안디옥에도 도착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실제로 그의 사명의

중심에 들어갈 수 있기까지는 그가 회심하고 부름을 받은 지 몇 년이 지난 후였을 것입니다.

이는 그가 미리 설교를 시작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그가 부르심을 받은 일이 성취되는 것을 실제로 볼 수 없거나, 그가 부르심을 받은 일이 성취되기 시작하기도 전에 설교를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오늘날에는 가끔 부름을 받고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젊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식이었습니다.

나는 곧바로 나가서 설교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훈련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루에 성경 40장을 읽었기 때문에 성경을 꽤 잘 배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에는 흠, 문화적 배경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리스어와 히브리어 등을 배우고 싶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그냥 나가서 설교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훈련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교육을 동등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훈련이 똑같이 유용하거나 똑같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 요점은 부르심이 항상 지금 당장 당신이 부르심을 받은 모든 일을 성취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화를 하면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당신이 무엇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는지에 대한 모든 세부 사항을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수년 전에 나에게 말씀하신 것 중 일부를 아직도 발견하고 있습니다.

아, 그게 바로 그 뜻이에요. 이것은 완벽하게 이해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라고 부르신 일 중 어떤 것이 아직은 할 수 없었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일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주님께서 종종 우리를 다른 방식으로 준비시키실 시간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르심을 위한 길. 따라서 당신은 자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고

계속 그곳으로 향하며 적절한 때에 그렇게 합니다. 그때까지는 그것이 당신의 소명이고 당신은 그것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그러므로 소명을 이행하기 위해 학교나 기타 다른 곳에서 시간을 보내야 하는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따라서 이야기는 바울과 베드로 사이를 오가며 나머지 장과 10장 전체 동안 베드로에게 머물게 될 것입니다. 9장 32절부터 9장과 43절까지,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 계속되는 기적에 대해 읽어 보십시오.

그리고 베드로는 빌립의 발자취를 따라 빌립이 설교한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는 9장 32절에서 룻다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룻다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40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에 다른 사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항상 예루살렘에 머무르고 있지 않습니다.

그곳은 욥바에서 약 17.5킬로미터 떨어진 곳으로 36절에 나옵니다. 욥바와 룻다는 유대인의 주요 해안 도시였습니다. 가이사랴는 훨씬 더 큰 해안 도시였지만 이방인이 더 많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유대인 도시라고 부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유대인 주민들은 그것을 유대인이라고 부르고 싶어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곳이 우리 도시다 하고 그 문제로 서로 충돌했습니다. 그러나 욥바와 룻다는 해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지배하는 도시였습니다.

9장 35절에 보면 샤론은 해안 평야에 있고 룻다는 해안 평야의 남쪽 끝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룻다와 샤론이 모두 주께 돌아오자 베드로가 애네아야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고 말한다. 그리고 병상에 누워 있던 이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이네이아스는 물론 일리아드에 나오는 이름이고 트로이 목마의 조상으로 여겨졌다. 죄송합니다. 로마인의 조상인 트로이아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그리스와 로마 이름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해안 평야인 리다와 샤론 전체가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누가와 다른 사람들은 때때로 과장법을 사용하지만 기독교인의 존재가 너무 강해서 2세기에도 관찰자들은 리다에 여전히 매우 강력한 기독교인의 존재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36절에 보면 옘바, 옘바는 오늘날의 텔아비브입니다. 옘바는 수익성이 좋은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곳은 가이사랴에서 남쪽으로 약 48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6년에 로마의 직접적인 권위 아래 놓이기 전까지는 유대인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곳은 유대인 통제의 역사를 갖고 있었고 이 지역에는 여전히 강력한 유대인 인구가 있었습니다. Tabitha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도르가라고도 불립니다. Tabitha는 가젤을 의미하는 셈어입니다. 도르가는 그리스어로 가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몇 가지 다른 언어로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나도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다. 그녀는 또한 은인이거나 은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고대와 비문의 여성 후원자를 알고 있습니다. 여성은 일반적으로 남성만큼 돈이 많지 않았지만 때로는 돈을 갖고 중요한 목적에 돈을 기부하거나 중요한 목적을 위해 제공했습니다. 적어도 현재 추산에 따르면 비문에 등장하는 고대 후원자의 약 10분의 1은 여성 후원자였습니다.

그녀는 41절에 언급된 과부들의 은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그들을 부양해 왔고 그들은 모두 그녀를 애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매우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글쎄, 그녀는 죽었고 유대인 죽은 사람들은 매장되기 전에 항상 씻겨졌습니다. 그것이 관습이었습니다. 이제 여성들은 남성의 시체나 여성의 시체를 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성 시체의 경우, 여성만이 여성의 시신을 매장할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여성의 몸을 탐하는 남성에게 대한 유대인 남성

교사의 관심 때문이었습니다. 38절에서 그들은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가 서두르기를 원합니다.

장례는 보통 당일 해가 지기 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말 서둘러야 합니다. 아주 빨리 장사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기억하십시오. 매장은 보통 당일 해가 지기 전에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에 매우 시급했습니다.

욥바와 룯다 사이에는 11마일(17.5킬로미터)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꽤 좋은 속도로 각 방향으로 이동하는 데 약 4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서둘러야 하고 그는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매우 빨리 그들과 함께 가야 합니다.

39절에서 그는 그곳에 도착합니다. 다비다는 다락방에 누워 있습니다. 위층 방은 일반적으로 작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것은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개는 작았습니다. 종종 그들은 평평한 지붕 위에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준비되는 시체에 대해 이야기하는 고대의 다른 출처도 있습니다.

사실, 구약의 다른 이야기에서도 다락방이 언급되어 있으며, 사도행전 20장에서는 유두고가 부활할 때 그와 함께 높은 층에서 떨어지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유한 로마 부인들에게는 하녀가 있었습니다. 39절에 언급된 일 중 얼마를 처리해야 하지만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40절에서 애통하는 과부들은 베드로에게 그 비통함을 보여주며 베드로의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40절에서 베드로는 육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베드로가 방으로 들어오기 전에 시신을 덮어 두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을 내보냅니다. 열왕기하 4장 33절에서 엘리사가 수넴 족속의 아들을 양육하기 위해 그곳에 아무도 있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콩고 사람 중 콩고 복음주의 교회의 집사인 장 마비엘라(Jean Mabiela)가 있습니다. 그는 외딴 지역에서 온 마리와 말라리아로 죽어가고 있던 마리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녀는 열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않은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신을 가장 가까운 마을인 돌레세로 가져와 병원으로 이송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Dolese에 있는 동안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택시들은 파업 중이었습니다. 그녀를 병원에 데려갈 방법도 없었고, 어쨌든 그녀를 병원에 데려갈 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마 진의 집에서 기도회가 열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녀를 Mama Jean의 집으로 데려가 그곳의 기도용 매트 위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Mama Jean의 조수인 Delphine은 이 시체를 가져가라고 말했습니다.

이곳은 장소가 아닙니다. 여기에 시체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이곳은 기도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Mama Jean은 "안돼, 기도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주님께서 정말로 극적인 일을 위해 오랫동안 자신을 준비시키신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신을 안으로 가져왔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좋아, 이 기도 모임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나가서 같은 모델을 따르라."

그리고 그들은 밖으로 나갔지만 창문으로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름이 뭐예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엿보고 있던 사람들이 마리아에게 말했다. 그래서 그녀는 마리를 위해 기도하면서 마리의 이름을 불러야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리는 다시 살아났고, 제가 마지막으로 들은 이야기는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여기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키우는 일과 유사하게 행해지는 이 기록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어떤 면에서는 엘리야가 사르밧의 아들의 과부를 키우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과부의 아들들에 관해 말하면,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나훔의 아들의 과부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여러 장부에 도표를 만들었습니다.

유사점이 모두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구약성서의 일부 세부 사항과 일치하는 세부 사항에 접근할 수 있는 누가가 이를 기록하고 싶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큼 유사점이 충분합니다. 물론 이러한 세부 사항 중 일부에서는 Peter와 다른 사람들이 직접 따라해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야이로의 딸을 키우실 때 베드로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나훔의 아들의 과부가 자랄 때 그곳에 있었습니다. 2세기 초 초기 기독교 변증가인 콰드라투스(Quadratus)가 이 글을 쓸 당시 아마도 노년이었을 것이라는 점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께서 죽음에서 살리신 사람들 중 일부가 우리 시대에도 계속해서 살았다고 말합니다. 시간. 그래서 그가 있던 시대에 Quadratus는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몇몇 어린이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그것은 말이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는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을 내보내고 기도하고, 41절과 42절에서 다비다가 일어나 그녀를 산 과부들에게 내보냅니다. 마치 열왕기상 17장에서 엘리야가 그 아이를 다비다에게 바친 것과 같습니다. 사르밧의 과부. 그리고 열왕기하 4장에서는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아이를 선물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7장 15절에는 나훔의 아들의 과부와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과도기적인 구절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또한 많은 누가복음의 독자, 누가복음의 청중들이 이해했을 매우, 매우, 매우 중요한 요점을 제시합니다.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읽고 다른 사람은 듣기 때문에 청중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충분한 사본이 없었고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쨌든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두장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시몬은 이 시대의 가장 흔한 이름 중 하나인 일반적인 이름입니다.

시몬은 헬라식 이름이었지만 유대 민족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들은 그 이름이 가부장적 이름이기도 했기 때문에 좋아했습니다. 시몬은 야곱의 12아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시대에 가장 흔한 이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두질업자는 강한 냄새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죽은 동물의 가죽을 무두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 밖에서 살았습니다. 이웃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도시 경계 안에서 사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랍비들은 아내들이 냄새를 참지 못하면 무두장이와 이혼할 수 있다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곳처럼 물 근처에 제혁소가 있다면 좀 더 관대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 태너입니다. 그래서 그는 바다 근처에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해안 마을이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베드로가 그다지 특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자신도 죽은 물고기를 많이 다루었지만, 그는 동시대 사람들 중 일부 매우 보수적인 유대인들만큼 특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무두장이나 사마리아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보내졌기 때문에 인생의 충격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종류의 이방인뿐만 아니라 로마 군대의 시리아 보조원이 종종 그곳에 살았던 유대인 공동체와 잘 지내지 못했던 모든 지역의 가이사랴에서 로마 군대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부터 시작하여 사도행전 10장을 소개하면서 우리는 짝을 이루는 환상, 고넬료와 시몬 베드로의 짝을 이루는 환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들은 9장과 12절에 나오는 바울이나 사울과 아나니아에 대한 환상과 유사합니다. 이것은 확인될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에서 매우 전략적인 중심 전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서 세 번이나 언급되는 내용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회심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 내용은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서는 바울 자신이 설명합니다. 이 내용은 사도행전 26장에서 바울 자신이 다시 설명합니다.

음, 고넬료야, 그의 회심이 여기에 서술되어 있구나. 이 이야기는 11장에서 베드로가 다시 예루살렘 교회에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15장에서 베드로가 다시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베드로는 이방인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을 뒷받침하는 선례로서 호소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Caesarea Maritima에서 발생합니다. 가이사랴 마리티마는 유대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로마 총독이 머물렀던 곳이다.

예루살렘은 그에게 매우 불편한 곳이었지만, 가이사랴 마리티마에는 이방인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가이사랴 마리티마는 마태복음 16장이나 마가복음 8장에서 읽은 가이사랴 빌립보와는 다릅니다. 가이사랴 마리티마는 원래 스트라토스 타워(Stratos Tower)라고 불렸습니다. 헤롯대왕에 의해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헤롯은 그곳에 유대 해안에서 가장 좋은 항구를 건설했습니다. 그것의 상당 부분이 오늘날까지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기념비가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그것을 연구했습니다. 가이사랴에 있는 극장은 좌석이 약 4,000명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추정에 따르면 적어도 현재 사람들은 종종 도시의 인구를 극장 크기의 약 10배로 추정합니다.

모든 주민이 시민이 되는 것은 아니며, 모든 시민이 항상 극장에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도시에 아마도 40,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해안에 있는 도시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유대를 다스리는 로마 총독의 관저였고, 로마 총독도 그곳에 많은 군대를 두고 있었습니다. 5개의 보조 코호트와 기병이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한 집단은 480~600명의 병력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전환기였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부 대대는 480명이었을 수도 있고, 일부는 600명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섯 대대가 있었고, 또 다른 대대는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군단은 10개 대대로 구성되었으며, 총 병력은 약 6,00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의 시리아 군인들과 보조 부대는 주로 지역 신병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시기의 군단에서도 대부분이 지역 출신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시민이기는 하지만 시리아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로 시리아인인 보조군 가운데 군단의 절반은 유대에만 있고, 예루살렘에 있는 대대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이곳 가이사랴에 있습니다. 시리아 군인들은 도시의 유대인 주민들이 아닌 다른 시리아 주민들의 편을 드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유대인 주민들이 자주 불평하는 일이었습니다.

시리아 주민들은 지역에 대한 애착이 매우 깊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지역 출신일 수도 있고, 다른 일부는 확실히 첩과 같은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0년 동안 봉사하는 동안 실제로 결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백부장이다. 한 세기는 약 80명의 군대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름은 세기, 백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바로 종이의 힘이었습니다. 남자는 80명쯤 됐어요. 일반적으로 귀족 출신의 호민관이나 특사관과는 달리 이들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직책을 맡았습니다.

사람은 로마에서 곧바로 더 높은 직위를 거쳐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나 군단과 집단을 지휘하는 호민관과 같은 직책을 맡은 귀족과는 달리, 이에 대한 그리스어 용어는 천 명의 병력을 지휘하는 칠리아크(chiliarch)였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종이의 힘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백부장은 직위를 통해 올라갔습니다. 따라서 백부장이 될 수 있는 일부 로마 귀족이 있지만 대부분은 군인으로 시작하여 20년의 복무가 끝날

무렵 또는 더 오래 머물기를 선택하여 백부장이 되었습니다. 이 그룹을 이탈리아 코호트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모두 이탈리아에서 이곳으로 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원래 집단은 이탈리아 출신이었을 수도 있지만 현재는 주로 시리아인으로 구성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증거가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범위의 특정 연도에는 이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만 이 기간부터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집단은 69년에 유대에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고고학적으로 그곳에서 입증되었습니다. 고넬료는 아마도 66~70년 전쟁 때 은퇴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은 아니더라도 60세에 로마 군대에서 은퇴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20년 동안 복무한 그들은 보통 18세에 입대했기 때문입니다. 그것 앞에.

그러나 고넬료는 분명히 60세가 되면 은퇴해야 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누가 글을 쓸 당시에 일어났을 유대-로마 전쟁에 실제로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군 복무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한 다음 고넬료에 대해 더 이야기하는 전환을 준비하겠습니다.

군복무는 선호되는 직업이었지만, 아마도 입대자 중 대략 절반만이 20년 동안 복무한 채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나이부터 큰 위험을 감수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18세, 보통 17세에서 37세 사이입니다. 그들의 입대 기간은 25년 후인 1세기에 이르지만, 이 기간에도 여전히 20년이 된다.

비시민권자는 군단에 합류할 수 없지만 보조군에 합류할 수 있었고, 이는 살아남은 경우, 특히 대규모 군사 충돌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매우 유용했습니다. 보조 부대는 제대 시 로마 시민권을 받았으며, 이는 특히 이 기간 동안 많은 시민 관리들조차 아직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지 않았던 동부 지중해 세계에 거주하는 경우 특별한 특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신성한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로마 군대에 복무하는 유대인이 없는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의 다른 곳에서도 군인에 관해 읽습니다. 루크는 오히려 그것들을 소중히 여기기 위해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는 세례 요한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고 말하는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존은 누구도 속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착취적이거나 모욕적인 방식으로 당신의 지위를 이용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이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알았어, 당신은 내가 당신의 당나귀를 사용하게 해야 하고, 당신은 내가 당신의... 그들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27장에서 우리는 바울과 함께 로마로 가는 백부장 율리오가 그들을 위해 배를 타고 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그는 군인이고 로마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들은 그것을 이용하여 스스로 뭔가를 얻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십자가에 달린 백부장이 예수님을 무죄한 사람으로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7장은 백부장 율리오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24장 등에서 바울을 돌보는 백부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는 평화의 왕에 관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아우구스투스 황제와 대조되는 발표가 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세금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인구 조사에 응답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이 있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당신은 강력한 황제가 주님으로 환호를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대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구원자와 하나님으로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는 로마의 평화인 팍스 로마나(Pax Romana)를 가져온 사람으로 칭송받았는데, 이는 자신이 알려진 세계를 정복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법적 허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자신들의 최대 적수인 파르티아를 정복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비아인들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독일군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아직 영국인들을 정복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는 평화를 가져오는 자로 환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낮은 계층으로 간주되었던 목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엘리트들로부터 멸시를 받았습니다.

이 목자들은 주님의 천사와 하늘의 군대로부터 가축 먹이는 구유에서 태어나신 참되고 가장 위대한 왕에 관한 정보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왕 곧 약속의 왕이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원자 곧 참 구주가 나셨으니 그가 곧 참 주님이시라 하였느니라. 지구상에는 평화와 인류를 향한 선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설교할 때, 그는 두루 다니시며 평화를 전파하신 예수님에 관해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글썄요, 로마인들은 그런 말을 듣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로마인들은 일반적으로 평화로운 수단으로 제국을 확장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클라우디우스가 그 직후 영국에서 했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정복을 통해 그것을 확장했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셨습니다. 그러나 평화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들이 군 복무 중인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루크는 분명히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그들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이 군인뿐 아니라 로마 군대의 이 장교에게도 곧 전해질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을 가르칠 때 Dr. Craig Keener입니다. 사도행전 9장 12회입니다.